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17년 7호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7년 3월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

박지은 수석연구원

김은영 수석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CONTENTS

[요 약]	i
I. 韓美 상품 · 서비스 교역 및 투자동향	01
1. 상품	01
2. 서비스	07
3. 투자	08
II. 한미 FTA 수출 성과 분석	11
1. 각 산업별 FTA 수혜품목 수출성과 분석	14
2. FTA 수출 활용률	17
III. 한미 FTA 이후 對美 수입 현황	20
1. 승용차	21
2. 의약품	22
3. 농축산물	23
IV. 업계가 바라본 한미 FTA	27
V. 결론 및 시사점	33

☐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

(☎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가 올해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발효 이후 세계교역 부진, 유가하락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한미 교역은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이후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3.5% 감소한 데 비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p 상승했으며,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동기간 8.50%에서 10.64%로 2.14%p 상승하였다. 특히 미국의 한국 점유율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한미 FTA가 양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을 동반 상승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수지 변화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1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2억 달러 적자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한국이 258.1억 달러 흑자이지만 서비스 수지는 140.9억 달러 적자로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1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511.8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 201.6억 달러에 비해 310.2억 달러 초과한 가운데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발효 전 3만 6,200명에서 4만 7천명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주요 품목인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감소세(-6.0%)를 보였다.

* 승용차의 해외생산·판매 비중 확대 및 국내 태풍영향에 따른 생산차질 등에 기인

대미 수입은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식품 등 미국 측 주요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승용차는 연평균 37.3% 증가하며 한국 수입 시장 내 점유율이 발효 전 9.6%에서 2016년 18.1%까지 상승했다. 의약품 수입도 연평균 12.9%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FTA와는 무관한 곡물, 사료 등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 수입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미 FTA에 대한 무역업계의 활용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응답업체의 68.0%가 한미 FTA를 활용 중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활용기업의 79.5%는 지난 5년간 FTA가 자사 경영 및 이익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업체는 한미 FTA가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가장 큰 도움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하면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문

I. 韓美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동향

1. 상품

■ [무역]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 교역 부진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미 교역은 증가세를 기록

-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은 3.5% 감소한 반면 한국의 대미 교역은 연평균 1.7%씩 증가
- 2016년(발효 5년차) 한국의 대미 교역액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1,096.8억 달러로 수출(-4.8%), 수입(-1.8%)이 모두 감소했으나 한국의 대세계 교역(-6.4%)에 비해 감소폭은 적었음

<한미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376.5 (-18.8)	498.2 (32.3)	562.1 (12.8)	585.2 (4.1)	620.5 (6.0)	702.8 (13.3)	698.3 (-0.6)	664.6 (-4.8)	3.4
수입 (증가율)	290.4 (-24.3)	404.0 (39.1)	445.7 (10.3)	433.4 (-2.8)	415.1 (-4.2)	452.8 (9.1)	440.2 (-2.8)	432.2 (-1.8)	-0.6
교역 (증가율)	666.9 (-21.3)	902.2 (35.3)	1,007.8 (11.7)	1,018.7 (1.1)	1,035.6 (1.7)	1,155.7 (11.6)	1,138.6 (-1.5)	1,096.8 (-3.7)	1.7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	6,866.2 (-19.9)	8,916.0 (29.9)	1,0796.3 (21.1)	1,0674.5 (-1.1)	1,0752.2 (0.7)	1,0981.8 (2.1)	9,632.6 (-12.3)	9,016.2 (-6.4)	-3.5
세계교역(수출)* (증가율)	114,230 (-21.5)	138,630 (21.4)	164,100 (18.4)	164,430 (0.2)	169,220 (2.9)	170,850 (1.0)	152,010 (-11.0)	148,050 (-2.6)	-2.0

주 : 세계 교역은 주요국 71개국의 대세계 수출을 기준으로 작성(2015년 기준 세계 수출의 약 90% 차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WTO

■ [수출]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4% 증가하며 對주요국 수출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나타냄

- 지난 5년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선진 경제권인 EU, 일본은 물론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율을 상회
- 대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2015년 이후에도 대세계 수출 감소율에 비해 낮은 감소폭을 기록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562.1	12.8	585.2	4.1	620.5	6.0	702.8	13.3	698.3	-0.6	664.7	-4.8	3.4
일본	396.8	40.8	388.0	-2.2	346.6	-10.7	321.8	-7.2	255.8	-20.5	243.6	-4.8	-9.3
중국	1,341.9	14.8	1,343.2	0.1	1,458.7	8.6	1,452.9	-0.4	1,371.2	-5.6	1,244.3	-9.3	-1.5
아세안	718.0	35.0	791.5	10.2	820.0	3.6	845.8	3.1	748.2	-11.5	745.3	-0.4	0.7
EU	557.3	4.1	493.7	-11.4	488.6	-1.0	516.6	5.7	480.8	-6.9	466.1	-3.0	-3.5
세계	5,552.1	19.0	5,478.7	-1.3	5,596.3	2.1	5,726.6	2.3	5,267.6	-8.0	4,954.7	-5.9	-2.3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수입]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수입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하여 한국의 대세계 수입이 연평균 5.0% 감소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기록

- 한국의 대미 수입은 발효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주요 수입 상대국인 아세안(-3.6%), 일본(-7.0%)으로부터의 수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세를 시현
- 지난 5년간 한국의 대EU 수입이 증가(연평균 1.8%)한 것은 원유 수입선 전환(영국산 브렌트유 도입)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미국	445.7	10.3	433.4	-2.8	415.1	-4.2	452.8	9.1	440.2	-2.8	432.1	-1.8	-0.6
일본	864.3	20.8	807.8	-6.5	830.5	2.8	900.8	8.5	902.5	0.2	869.8	-3.6	0.1
중국	531.2	20.5	519.8	-2.2	533.4	2.6	534.2	0.1	450.3	-15.7	443.2	-1.6	-3.6
아세안	474.2	22.5	503.7	6.2	562.3	11.6	623.9	11.0	572.0	-8.3	519.0	-9.3	1.8
EU	683.2	6.3	643.6	-5.8	600.3	-6.7	537.7	-10.4	458.5	-14.7	474.7	3.5	-7.0
전 세계	5,244.1	23.3	5,195.8	-0.9	5,155.9	-0.8	5,255.1	1.9	4,365.0	-16.9	4,061.9	-6.9	-5.0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품목별] 승용차, 자동차 부품, 무선전화기 수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발효 이후 항공기 부품, 승용차, 의약품 수입이 증가세를 시현

- (수출) 발효 이후 5년간 승용차(12.4%), 자동차부품(6.1%), 제트유 및 등유(3.4%) 등이 수출을 주도
 - 단, 2016년 승용차 수출은 북미 현지생산 비중 확대, 태풍 등에 따른 생산차질로 전년대비 11.0% 감소
- (수입) 항공기 부품(12.4%), 승용차(37.1%), 의약품(12.9%) 수입이 증가한 반면 비중이 높은 사료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10.6%)
 - 사료 수입 감소는 미국 내 작황 등에 기인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입 품목(상위 10개)>

(단위 : 억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2011년 (발효 전)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품목	2011년 (발효 전)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금액	금액	증가율	비중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비중	증가율
승용차	86.3	154.9	-11.0	23.3	12.4	집적회로반도체	38.4	34.8	-7.2	8.1	-1.9
자동차 부품	50.2	67.5	-2.8	10.2	6.1	항공기 부품	13.6	24.4	87.2	5.6	12.4
무선전화기	80.9	64.7	3.3	9.7	-4.4	반도체제조용 장비	22.8	20.8	5.6	4.8	-1.8
집적회로반도체	24.1	18.7	-24.7	2.8	-4.9	승용차	3.5	16.8	39.5	3.9	37.1
제트유 및 등유	15.5	18.2	-19.9	2.7	3.4	가축육류	11.6	14.3	13.6	3.3	4.2
타이어	14.9	14.4	3.6	2.2	-0.7	항공기	15.0	13.7	-30.1	3.2	-1.8
개별소자반도체	1.8	13.6	95.6	2.0	50.6	LPG	0.01	12.2	65.2	2.8	321.9
냉장고	10.0	11.0	0.5	1.7	1.9	의약품	6.1	11.2	10.8	2.6	12.9
보조기억장치	2.7	9.6	36.1	1.4	28.5	사료	18.3	10.4	2.3	2.4	-10.6
항공기부품	7.4	8.5	-8.6	1.3	2.8	기타 정밀화학원료	10.2	9.3	-8.2	2.1	-1.9
소계	293.8	381.1	-5.2	57.3	5.3	소계	139.5	167.9	10.27	38.9	3.8
전체	562.1	664.6	-4.8	100	3.4	전체	445.7	432.2	-1.8	100.0	-0.6

주 : MTI 4단위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무역수지] 발효 이후 5년간 무역수지 흑자는 총 116.1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발효 3년차를 기점으로 증가폭이 줄면서 2016년에는 전년대비 25.6억 달러 감소한 232.5억 달러 기록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동향>

(단위 : 억 달러)

	2011년 (발효 전) (a)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b)	5년간 증감 (b)-(a)
수지	116.4	151.8	205.4	250.0	258.1	232.5	116.1
<증감액>	<22.3>	<35.4>	<53.6>	<44.6>	<8.1>	<-25.6>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6년 흑자 감소는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승용차 수출이 해외 생산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흑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 부품의 적자폭이 확대된 결과

- 승용차에 대한 흑자 감소분은 23.9억 달러로 전체 감소의 93.4%에 달해 전반적인 무역수지 흑자 감소를 주도
 - 반면 개별소자반도체(6.3억 달러), 보조기억장치(2.8억 달러), 축전지(1.8억 달러) 등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 증가

<2016년 무역수지 감소 품목(상위10개)>

(단위 : 억 달러)

순위	품목	2015년 무역수지 (a)	2016년 무역수지 (b)	증감 (b-a)
1	승용차	161.9	138.1	-23.9
2	항공기부품	-3.7	-15.9	-12.2
3	선박	6.1	-0.1	-6.2
4	LPG	-7.2	-12.0	-4.8
5	제트유 및 등유	22.8	18.2	-4.5
6	집적회로반도체	-12.7	-16.1	-3.4
7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0.2	-3.3	-3.1
8	기초유분	6.6	3.7	-2.9
9	자동차부품	65.0	62.8	-2.2
10	석유화학중간원료	-2.4	-4.4	-2.0
전체		258.1	232.5	-25.6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미국측 평가 】

- 2016년 6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FTA 영향 보고서는 한미 FTA로 인해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
- 특히 FTA 미체결 가정 시 미국의 對韓 상품무역 적자는 44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2015년 적자규모는 이보다 158억 달러 줄어든 283억 달러를 기록해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미국측 통계 기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수지 개선효과(주요 협정별)>

(단위 : 억 달러)

	캐나다	한국	호주	멕시코	이스라엘	싱가포르	콜롬비아
2015년 무역수지	-152	-283	142	-584	-109	104	24
미체결 가정 시 무역수지	-329	-440	1	-716	-146	68	-10
개선효과	177	158	141	132	37	37	34

자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 [점유율]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

-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3.31%)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FTA 발효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지난 5년간 0.62%p 증가했으며, 동 기간에 경쟁국인 일본은 0.2%p 늘어나는 데 그침
- 미국은 발효 초기에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발효 3년차부터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2016년에는 발효 전 8.50% 대비 2.14%p 증가한 10.64%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임

<한미 수입시장 내 점유율 추이>

(단위 : %, %p)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발효 전후 변화
미국 수입 시장	한국	2.43	2.29	2.52	2.55	2.57	2.59	2.75	2.97	3.20	3.19	+0.62
	일본	7.45	6.63	6.16	6.30	5.84	6.43	6.11	5.71	5.85	6.04	+0.20
	중국	16.46	16.08	19.03	19.07	18.09	18.70	19.43	19.90	21.50	21.14	+3.05
	대만	1.96	1.73	1.82	1.87	1.88	1.71	1.67	1.73	1.82	1.80	-0.08
한국 수입 시장	미국	10.43	8.81	8.99	9.50	8.50	8.34	8.05	8.62	10.09	10.64	+2.14
	일본	15.76	14.00	15.30	15.12	13.03	12.39	11.64	10.23	10.50	11.69	-1.34
	중국	17.66	17.67	16.79	16.83	16.48	15.55	16.11	17.14	20.68	21.41	+4.93
	대만	2.79	2.45	3.05	3.21	2.80	2.70	2.84	2.99	3.82	4.04	+1.24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미국 상무성(US DOC)

2. 서비스

■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었으나, 당초 우려와 달리 급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는 한국이 258.1억 달러 흑자이지만 서비스 수지는 140.9억 달러 적자로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117.2억 달러 수준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한국기준 통계					미국기준 통계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 1-9월
수출 (증가율)	158.5 (14.1)	176.8 (11.5)	181.5 (2.7)	178.5 (-1.7)	148.5 (-16.8)	97.4 (4.3)	106.4 (9.3)	106.4 (0.0)	107.1 (0.6)	111.3 (3.9)	80.0 (-4.7)
수입 (증가율)	268.2 (0.5)	301.4 (12.4)	292.5 (-2.9)	288.5 (-1.4)	289.3 (0.3)	166.6 (7.9)	181.6 (9.0)	209.6 (15.4)	202.4 (-3.4)	205.1 (1.4)	146.2 (-6.4)
수지 <증감액>	-109.7 <18.3>	-124.6 <-14.9>	-111.0 <13.6>	-110.0 <0.9>	-140.9 <-30.9>	-69.3 <8.1>	-75.2 <5.9>	-103.1 <27.9>	-95.3 <-7.8>	-93.9 <-1.5>	-66.3 <-6.1>

주 :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 >는 전년동기비 증감액

자료 : 한국은행,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분야별로는 한미 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불이 크게 증가하여 적자폭이 확대

<한국의 주요 분야별 대미 서비스 무역 동향(미국기준 통계)>

(단위 : 억 달러, %)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운수 서비스	수출	48.8	49.7	53.5	55.7	58.5
	수입	22.3	22.4	21.9	22.2	23.2
	수지	26.5	27.3	31.6	33.5	35.3
지재권 사용료	수출	1.3	1.3	1.3	1.5	2.9
	수입	45.3	55.2	72.7	60.9	60.2
	수지	-44.0	-53.9	-71.4	-59.4	-57.3
여행 서비스	수출	10.6	12.7	13.3	12.9	12.5
	수입	59.0	59.1	69.7	72.4	79.7
	수지	-48.4	-46.4	-56.4	-59.5	-67.2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3. 투자

■ 미국은 한국의 주요 투자 파트너로서 한미 FTA 이후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

-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511.8억 달러로 미국의 대한 투자 201.6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면서 한미 간 투자규모는 확대 추세
- (한국 → 미국) 미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 대상국으로 2016년 180억 달러를 투자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
 - 2016년에는 미국 도소매업, 보험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미 투자가 급증
- (미국 → 한국) 미국은 對韓 외국인 직접투자 1위 국가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총 투자 유입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한미 투자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누적
한국 → 미국	금액	39.8	50.7	166.1	70.1	59.4	94.4	107.8	180.0	1,091.5
	순위	2	1	1	1	1	1	1	1	1
	비중	12.8	14.8	36.3	17.7	16.7	26.8	26.7	37.1	22.1
미국 → 한국	금액	14.9	19.7	23.7	36.7	35.3	36.1	54.8	38.8	663.0
	순위	4	3	1	2	1	1	1	1*	1
	비중	12.9	15.1	17.3	22.6	24.2	19.0	26.2	18.2	23.7

주 : 신고금액 기준, *사모아 등 조세 회피처로부터의 투자는 순위에서 제외
 자료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업종별로는 발효 이후 한미 모두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

-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2016년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

- 미국의 對韓 투자는 발효 초기 제조업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IT 관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

* 미국의 對韓 제조업 투자 비중(%) : 41.5(발효 1~2년차) → 16.8(발효 3~5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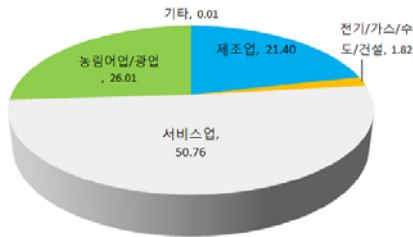
** 미국의 對韓 IT 서비스업 투자 규모(억 달러) : 0.9('12) → 1.9('13) → 1.9('14) → 6.3('15) → 4.5('16)

<한미 업종별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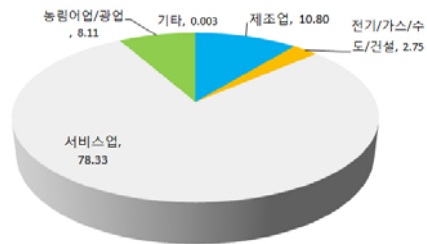
(단위 : %)

한국 → 미국 투자

(발효 전 : 196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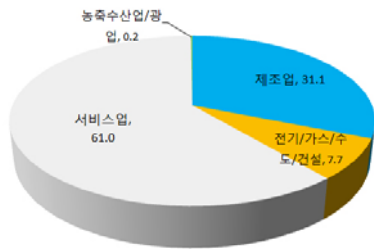


(발효 후 :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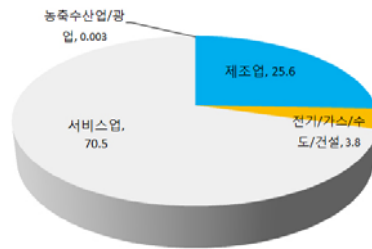


미국 → 한국 투자

(발효 전 : 1962~2011)



(발효 후 :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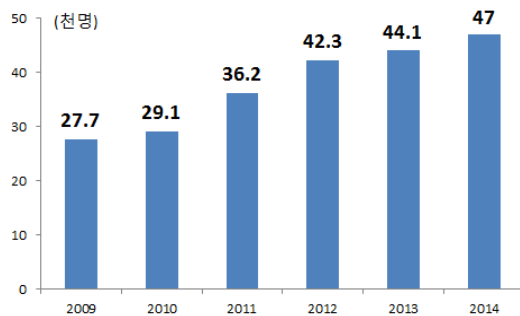


주 : 신고금액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내 고용 동향

-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고용규모도 확대되어 2014년에는 총 4만 7천명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집계됨
- 이는 해외기업에 의한 총 고용 중 0.7% 수준으로 영국, 일본 등 주요 대미 투자국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규모임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고용인원 추이>



주 : 고용인원은 누적 기준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 내 외국기업의 고용인원(2014)>

국가	고용인원(천명)	비중(%)
영국	1,131.8	17.0
일본	902.1	13.6
독일	690.6	10.4
캐나다	649.3	9.8
프랑스	591.9	8.9
한국	47.0	0.7
싱가포르	42.4	0.6
중국	38.3	0.6
전 세계	6,649	100.0

주 : 고용인원은 누적 기준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Ⅱ. 한미 FTA 수출 성과 분석

※ 품목별 FTA 수혜품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수입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對美 수출은 미국의 對韓 수입을 의미함

■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4년차까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5년차인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699.3억 달러 기록

- 2016년 FTA 수혜품목 수출은 전년대비 6.0% 감소하였으나 비중이 높은 승용차가 2016년부터 수혜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총 수출 내 비중은 54.6%로 증가

*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의 對韓 승용차 수입에 대한 미국측 관세율 2.5%는 발효 후 4년차까지 유지된 후 5년차(2016년)부터 철폐됨

<FTA 혜택별 대미 수출 증가율(미국의 對韓 수입)>

(단위 : 억 달러, %)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 품목	566.6	589.0	3.9	622.3	5.7	696.1	11.9	718.3	3.2	699.3	-2.6	100.0
- 수혜	182.0	208.5	14.6	212.4	1.9	224.1	5.5	235.5	5.1	381.6	-6.0	54.6
- 비수혜	384.6	380.4	-1.1	409.8	7.7	471.9	15.2	482.8	2.3	317.7	1.7	45.4

주 1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주 2 : 2016년(FTA 5년차) FTA 수혜/비수혜 분류는 ITA II 및 승용차(HS 8703)의 비선형관세철폐를 반영함

자료 : USITC(<http://dataweb.usitc.gov/>), 미국 상무성(US DO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

- 발효 1~4년차 동안 FTA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에 비해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

-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주요 품목인 승용차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석유 제품은 단가 하락으로 수출 물량은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이 감소하면서 수혜품목 수출 감소에 영향

– 승용차는 발효 이후 2016년부터 미국측 2.5%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해외생산·판매 비중 확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0% 감소

* 한국기업의 미국 내 승용차 판매 중 북미 생산비중(%) : 38.9('11) → 41.4('15) → 42.1('16)

<한미 FTA 이후 주요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미국의 수입) 비교>

(단위 : %)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2016년*(5년차)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한국	14.6	-1.1	3.9	1.9	7.7	5.7	5.5	15.2	11.9	5.1	2.3	3.2	-6.0	1.7	-2.6
일본	15.2	12.7	13.5	-7.6	-4.2	-5.4	-1.6	-4.2	-3.3	-7.8	0.9	-2.1	3.7	-3.4	0.8
중국	6.7	6.5	6.6	4.5	2.8	3.5	5.3	6.4	6.0	4.2	2.6	3.3	-4.3	-3.7	-4.0
대만	8.9	-13.1	-6.2	-0.5	-3.5	-2.4	5.8	7.7	7.0	7.3	-3.7	0.3	-6.4	-1.5	-3.4
전 세계	1.4	4.7	3.0	-2.5	1.6	-0.4	0.5	6.1	3.5	-11.9	2.1	-4.4	-4.3	-0.4	-2.3

주 1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주 2 : 2016년(FTA 5년차) FTA 수혜/비수혜 분류는 ITA II 및 승용차(HS 8703)의 비선형관세철폐를 반영함

자료 : USITC(<http://dataweb.usitc.gov/>), 미국 상무성(US DO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FTA 혜택별 수출 성과 분석방법 】

○ 분석대상 : 미국의 對세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품목별 수입 데이터

– 품목별로 관세 인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미국측 수입 데이터(미국 상무성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활용

① FTA 수혜품목 : 2012.3.15일 FTA 발효 이후 관세가 n% → 0%로 철폐, TRQ(저율관세할당), 한미 FTA에 따라 인하되는 품목

② FTA 비수혜품목 : 원래 관세가 0%인 무관세 품목이나 일정기간 관세 인하 · 철폐유예품목(화물자동차 등), 양허 제외 품목 혹은 기타품목

※ 미국의 정보기술확대협정(ITA II, Information and Technology Agreement) 발효('16.7.1.), 한미 FTA에 따른 승용차(HS 8703) 관세철폐(2.5% → 0%, '16.1.1.)를 고려해 기존 2015년까지의 FTA 수혜/비수혜 품목 분류를 변경

<2016년 FTA 수혜/비수혜 품목 분류 변경>

	2012-2015년		2016년		변경사항
	MFN	FTA	MFN	FTA	
ITA 확대 품목	n%	0%	0%	0%	수혜 → 비수혜
승용차(10개 세번)	2.5%	2.5%	2.5%	0%	비수혜 → 수혜

– 경쟁국 대비 한미 FTA의 상대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 기간에 대해 미국의 경쟁국에 대한 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 분석기간 : 2011년(FTA 발효 전), 2012년(발효 1년차)~2016년(발효 5년차)

○ 분석방법 :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對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 대한 품목별 수입 데이터(각 국의 대미 수출)와 한미 FTA의 미국측 상품 양허안을 연계하고,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FTA 수출 성과를 분석

※ 한미 FTA 양허안은 HS 200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 HS 2012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양허안과 수입 통계 데이터 연계시 일부 HS코드에 대해 불일치 문제 발생. 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관세율 DB 및 HS 코드 변경 이력을 종합하여 자료 간 오차를 최소화

1. 각 산업별 FTA 수혜품목 수출 성과 분석

■ 발효 이후 5년간 수송기계, 화학제품, 기계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FTA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이 증가

- (수송기계) 발효 초기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확대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2016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2.5%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혜품목 수출 규모가 205.9억 달러로 증가

- 자동차 부품(HS8708) 수출은 2.5%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됨에 따라 차체 부분품, 기어박스, 운전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연평균 8.0% 증가

- 2016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가 철폐되어 수혜품목의 수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북미 생산기지를 통한 판매 확대 및 태풍에 따른 국내생산 차질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 * 대미 3,000cc 이상 승용차(HS870324) 수출(억 달러) : 35.2('15) → 26.5('16)

- (전기전자) 발효 이후 연평균 5.3% 증가하며 경쟁국인 일본(1.3%), 중국(3.8%), 대만(3.2%)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달성

- 축전지(HS8507), 유압식 변압기(HS850423), 컬러 TV(HS852872) 등의 수출이 발효 이후 호조를 보이며 수출을 견인

- (기계) 주요 품목의 직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효 이후 연평균 1.6% 소폭 증가

- 수출 비중이 높은 세탁기(HS8450)가 생산기지 이전의 영향으로 5년간 23.4% 감소하였으나 열교환기(HS841590), 보일러 부분품(HS840290)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버팀목 역할을 수행

- 한편 2016년 수출이 11.9% 감소한 것은 2015년 일시적으로 대형 증기발생 보일러(HS840211, 2.2억 달러) 수출이 이뤄진 데에 따른 기저효과

- (화학제품) 5년간 연평균 9.7% 수출을 늘리며 미국 수입 규모 증가폭(1.2%)은 물론 일본(-4.0), 중국(4.1%), 대만(3.8%) 등 주요 경쟁국의 성과를 큰 폭으로 상회
- FTA를 통해 6.5%의 관세가 철폐된 프로필렌(HS3902), 스티렌(HS3903)이 수출을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생물 조제배양제(HS3821) 수출이 전년대비 145.7% 급증

<산업별 FTA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 현황(미국의 수입)①>

(단위 : 억 달러, %)

품목 분류	수입 국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2016년*(5년차)			연평균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수송 기계	세계	690.8	15.1	710.9	2.9	791.3	11.3	839.8	6.1	2,506.3	0.1	100.0	33.1*
	한국	38.7	23.2	43.0	11.1	45.6	6.2	46.5	1.9	205.9	-5.5	17.4	45.7*
	일본	116.2	23.4	99.5	-14.4	95.4	-4.1	85.4	-10.5	480.3	8.4	19.2	38.5*
	중국	81.6	15.3	86.2	5.6	101.5	17.8	113.6	11.9	121.7	4.3	4.9	11.4*
	대만	20.3	9.3	20.6	1.4	21.2	2.6	24.4	15.4	23.5	-7.2	0.9	4.8*
전기 전자	세계	1,097.1	7.6	1,101.4	0.4	1,166.3	5.9	1,209.4	3.7	1,169.1	-2.9	100.0	2.8
	한국	24.8	4.8	25.5	2.9	26.9	5.4	30.3	12.5	30.7	1.7	2.6	5.3
	일본	90.7	23.0	86.8	-4.2	83.5	-3.9	80.8	-3.2	78.8	-2.3	6.7	1.3
	중국	331.1	8.7	340.6	2.9	367.6	7.9	387.9	5.5	366.6	-4.8	31.4	3.8
	대만	20.3	4.8	21.4	5.2	22.9	7.3	24.0	4.8	22.7	-5.2	1.9	3.2
기계	세계	789.9	11.2	791.5	0.2	867.5	9.6	872.6	0.6	842.3	-2.9	100.0	3.5
	한국	39.8	17.2	37.6	-5.7	37.1	-1.2	41.7	12.4	36.7	-11.9	4.4	1.6
	일본	117.8	17.4	105.9	-10.1	108.5	2.4	99.6	-8.2	98.7	-0.6	11.7	-0.3
	중국	110.8	14.0	122.1	10.3	136.4	11.7	146.9	7.6	138.8	-3.2	16.5	7.4
	대만	19.8	21.3	19.0	-3.8	20.5	7.6	20.8	1.8	19.2	-6.8	2.3	3.3
금속/ 광물	세계	721.8	2.5	740.4	2.6	773.4	4.5	763.1	-1.3	757.1	-0.8	100.0	1.5
	한국	15.5	13.5	15.4	-0.4	19.5	26.1	19.5	0.2	17.3	-11.1	2.3	4.9
	일본	30.9	16.2	29.4	-4.9	27.6	-6.3	26.1	-5.3	26.6	1.9	3.5	-0.01
	중국	187.5	6.1	199.3	6.2	211.7	6.3	222.5	5.1	220.3	-1.0	29.1	4.5
	대만	27.6	6.0	27.7	0.5	28.6	3.2	30.0	4.9	28.4	-5.3	3.8	1.8
화학 제품	세계	974.6	-0.03	1,002.3	2.8	1,042.2	4.0	1,039.5	-0.3	1,037.3	-0.1	100.0	1.2
	한국	19.1	11.0	22.4	17.6	25.0	11.2	26.4	5.9	27.4	3.7	2.6	9.7
	일본	67.5	5.6	64.9	-3.8	67.1	3.4	54.6	-18.7	52.1	-4.0	5.0	-4.0
	중국	184.7	9.2	194.6	5.3	204.7	5.2	207.5	1.4	207.2	-0.1	20.0	4.1
	대만	19.6	8.5	20.2	3.5	21.9	8.0	22.3	2.1	21.7	-2.6	2.1	3.8

주 1 : 점유율은 대세계 수입액 중 각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연평균증가율은 5년간(2012~2016) 연평균 증가율

주 2 : 2016년(FTA 5년차) FTA 수혜/비수혜 분류는 ITA II 및 승용차(HS 8703)의 비선형관세철폐를 반영함

주 3 : 승용차는 미국측 관세 2.5%가 발효 4년차까지 유지된 후 발효 5년차(2016년)에 철폐되면서 지난해부터 수혜 품목 수출로 계상되었으며, 연평균증가율은 발효 전(2011년, 승용차 미포함) 대비 5년차(2016년, 승용차 포함)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자료 : USITC(<http://dataweb.usitc.gov/>), 미국 상무성(US DO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가죽/고무/신발) 발효 초기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4년차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며 연평균 0.4% 성장
 - 특히 2016년에는 타이어(HS401110), 컨베이어 벨트(HS4010) 등 주요 품목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대세계 수입이 8.0% 감소한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를 기반으로 1.1% 감소에 그침
- (농림수산물) 수출 규모는 작지만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FTA 수혜품목 수출이 지속 성장하는 추세
 - 라면 등 인스턴트 면류(HS190230) 수출은 발효 즉시 6.4% 관세가 철폐되면서 연평균 22.0% 증가

<산업의 FTA 혜택별 대미 수출 현황(미국의 수입)②>

(단위 : 억 달러, %)

품목 분류	수입 국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2016년*(5년차)			연평균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가죽/ 고무/ 신발	세계	449.6	11.6	466.3	3.7	487.7	4.6	497.4	2.0	457.7	-8.0	100.0	2.6
	한국	18.4	10.4	15.7	-14.7	15.5	-1.7	17.2	11.3	17.0	-1.1	3.7	0.4
	일본	23.4	0.1	21.2	-9.2	20.6	-2.7	20.8	0.7	18.1	-12.7	4.0	-4.9
	중국	217.7	13.8	226.3	3.9	232.3	2.7	221.1	-4.8	184.4	-16.6	40.3	-0.7
	대만	6.5	7.0	6.6	1.3	6.9	4.6	8.0	16.1	7.2	-9.4	1.6	3.6
농림수 산식품	세계	651.7	8.1	678.5	4.1	718.7	5.9	742.9	3.4	757.0	1.9	100.0	4.7
	한국	3.6	10.4	4.3	16.8	4.6	7.4	5.2	12.9	5.8	12.0	0.8	11.9
	일본	4.1	4.4	3.9	-4.9	3.9	-0.6	4.1	7.0	4.6	12.3	0.6	3.5
	중국	22.6	9.1	23.3	2.8	23.3	0.1	25.4	9.0	25.9	1.8	3.4	4.5
	대만	1.8	8.9	1.9	10.1	2.1	5.3	2.0	-0.4	2.1	3.7	0.3	5.4
석유 제품	세계	4,054.1	-5.5	3,601.7	-11.2	3,240.2	-10.0	1,753.1	-45.9	1,411.2	-19.5	100.0	-19.9
	한국	29.4	26.5	28.3	-3.7	28.9	1.9	27.9	-3.2	21.9	-21.7	1.6	-1.2
	일본	5.1	19.3	5.8	13.0	4.4	-24.3	5.6	27.1	4.2	-23.9	0.3	-0.3
	중국	0.9	35.3	1.4	57.0	2.6	93.6	3.0	15.0	4.4	45.2	0.3	47.0
	대만	2.7	100.8	0.2	-91.8	0.4	87.6	2.2	440.9	0.7	-69.6	0.0	-12.6
목재/ 종이	세계	51.7	10.0	58.0	12.2	63.7	9.8	70.7	11.0	73.5	3.9	100.0	9.3
	한국	0.05	7.8	0.1	16.6	0.1	22.2	0.04	-31.8	0.1	39.1	0.1	7.8
	일본	0.1	17.3	0.1	-6.2	0.1	-8.9	0.1	4.1	0.1	8.3	0.1	2.5
	중국	24.7	12.7	27.3	10.5	30.3	10.9	33.2	9.5	33.2	0.1	45.2	8.7
	대만	0.3	12.0	0.2	-6.3	0.3	8.5	0.3	31.5	0.3	-2.1	0.4	7.9
섬유/ 의류	세계	1,120.9	-1.6	1,159.1	3.4	1,191.2	2.8	1,239.3	4.0	1,180.1	-4.8	100.0	0.7
	한국	12.9	4.9	13.0	1.3	13.2	1.6	13.0	-1.6	12.5	-4.1	1.1	0.4
	일본	7.0	11.1	6.4	-8.9	6.7	3.9	7.0	5.6	6.7	-4.0	0.6	1.3
	중국	476.3	-2.6	488.7	2.6	491.9	0.7	509.7	3.6	473.8	-7.1	40.1	-0.6
	대만	11.0	-1.0	10.7	-2.8	11.0	2.8	10.9	-0.4	9.4	-13.8	0.8	-3.2

주 : 점유율은 대세계 수입액 중 각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연평균증가율은 5년간(2012-2016) 연평균 증가율
 자료 : USITC(<http://dataweb.usitc.gov/>), 미국 상무성(US DO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FTA 수출 활용률

■ 한미 FTA 수출 활용률¹⁾은 발효 2년차인 2013년부터 70% 이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2016년 수출 활용률은 78.2%를 기록

- FTA 수출 활용률은 발효 1년차(2012년)에 52.6%에 그쳤으나 발효 2년차에 70.7%로 18.1%p 증가하였으며, 이후 발효 5년차까지 증가세를 지속
- 2016년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 중 FTA를 활용하여 수출한 금액은 298.4억 달러로 78.2%의 활용률을 기록
 - FTA 활용 수출액은 발효 1년차 109.6억 달러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29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약 2.7배 증가

<산업별 FTA 활용액 및 활용률(미국의 對韓 수입)>

(단위 : 억 달러, %)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2016년*(5년차)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전체	109.6	52.6	150.2	70.7	160.4	71.6	167.6	71.2	298.4	78.2
수송기계	22.1	57.0	35.1	81.7	38.3	83.9	39.5	84.9	174.0	84.5
기계	20.2	50.8	25.6	68.2	25.8	69.6	28.7	68.7	25.2	68.6
화학제품	11.2	58.8	18.2	80.9	21.0	84.1	22.2	84.2	23.2	84.7
전기전자	11.9	47.9	16.3	63.7	18.1	67.4	20.3	67.0	22.7	74.0
가죽/고무/신발	12.9	70.2	15.0	95.4	14.8	95.6	16.5	95.8	16.4	96.2
금속 및 광물	8.7	55.8	12.1	78.3	14.7	75.3	14.4	73.9	12.4	71.8
섬유 및 의류	7.2	55.7	9.3	71.1	9.6	72.8	9.7	74.9	9.8	78.5
석유제품	10.6	35.9	10.7	37.9	9.8	33.9	7.6	27.3	6.9	31.4
기타 제조업품	2.1	57.4	3.2	74.8	3.3	72.7	3.6	69.5	4.0	68.9
농수산물식품	2.8	44.7	4.7	66.2	5.0	63.7	5.0	65.3	3.8	59.8
목재 및 종이	0.02	52.9	0.03	63.8	0.04	66.0	0.03	69.7	0.05	78.2

자료 :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1) FTA 수출 활용률은 FTA 수혜가능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총액에서 실제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 총 활용액에서 승용차를 포함한 수송기계의 활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8.3%를 기록한 가운데 화학제품, 가죽/고무/신발 분야에서 평균 활용률을 상회하며 전반적인 FTA 활용을 주도

● (수송기계) 2016년부터 승용차(HS 8703)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FTA를 활용한 수송기계 분야 대미 수출액은 2015년 39.5억 달러에서 174.0억 달러로 급증

– 2016년부터 승용차(HS 8703)에 대한 2.5% 관세가 철폐되어 135.2억 달러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었으며 FTA 활용률은 84.1%를 기록

● (화학제품) 2016년 화학제품의 FTA 활용률은 84.7%로 23.2억 달러가 FTA를 통해 수출

● (가죽/고무/신발)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HS 401110)는 10.7억 달러가 무관세(MFN 4%)를 적용 받아 수출되었으며 활용률이 99.7%에 달함

■ 반면 석유제품(31.4%), 농수산물(59.8%)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활용성과를 나타냄

● (석유제품) 트레이더를 통한 간접수출 비중이 높아 FTA 활용이 제한적이며, 수입업체들의 특혜관세 미신청도 낮은 활용률의 원인으로 파악됨

● (농수산물) 주요 수출 품목인 가공식품은 수입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특성 상 원산지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과일·견과류 조제품(MFN 6.0%), 라면(MFN 6.4%)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높은 FTA 활용률을 기록

* 2016년 FTA 활용액 및 활용률 : 라면(HS190230) 0.46억 달러, 91.4%,

과일·견과류 조제품(HS200899) 0.66억 달러, 91.4%

【 참고 】 실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수의 변화

-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실제 FTA를 적용하여 미국으로 수출된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FTA 특혜관세 혜택 적용 품목수(미국 HS 최종단위 기준)>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품목수(개)	3,521	3,795	3,829	3,888	4,111
비중(%)	45.6	50.4	49.8	50.0	51.0

주 : 미국의 당해년도 對한국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자료 :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FTA 미활용 품목에 대한 신규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
- 특히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2.5% 관세가 2016년 무세로 철폐됨에 따라 관련 12개 품목(미국 HS 10단위 기준)의 FTA 활용이 본격화

Ⅲ. 한미 FTA 이후 對美 수입 현황

■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은 연평균 0.6% 감소한 가운데 5년차인 2016년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432.1억 달러 기록

- 발효 이후 FTA 수혜품목 중 항공기부품(12.4%), 승용차(37.1%), 의약품(12.9%)이 대미 수입을 주도
- 농산물 수입은 비중이 높은 사료, 곡물 수입은 감소한 반면 과실류, 로얄제리, 견과류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
- 육류 수입은 발효 초기에 감소하였으나 2014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5년간 연평균 4.2% 소폭 증가

* 한국의 대미 가축육류 수입 증가율(전년대비 %) : -21.4('12) → -2.4('13) → 31.0('14) → 7.7('15) → 13.6('16)

<한미 FTA 이후 주요 품목별 대미 수입현황>

(단위 : 억 달러, %)

품목명	2011년 (발효 전)	2016년 (2년차)		5년간 연평균 증가율	품목명	2011년 (발효 전)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집적회로반도체	38.4	34.8	-7.2	-1.9	곡류	10.3	5.3	-13.6	-12.6
항공기부품	13.6	24.4	87.2	12.4	석유화학중간원료	3.4	5.1	95.5	8.3
반도체 제조용장비	22.8	20.8	5.6	-1.8	펌프	5.0	5.1	-7.6	0.4
승용차	3.5	16.8	39.5	37.1	자동차부품	4.3	4.7	3.9	1.7
가축육류	11.6	14.3	13.6	4.2	과실류	3.0	4.6	6.1	9.1
항공기	15.0	13.7	-30.1	-1.8	기타 석유화학제품	7.8	4.3	33.1	-11.3
LPG	0.0	12.2	65.2	321.9	기타 화학공업제품	5.3	4.1	-19.2	-5.2
의약품	6.1	11.2	10.8	12.9	화장품	0.1	4.0	-11.2	97.2
사료	18.3	10.4	2.3	-10.6	무기류	2.2	4.0	106.7	13.0
기타 정밀화학원료	10.2	9.3	-8.2	-1.9	의료용전자기기	4.0	3.7	-0.3	-1.4
합성수지	8.1	9.3	0.1	2.7	의료용기기	3.5	3.7	7.1	1.2
기타 정밀화학제품	8.4	9.1	-10.8	1.7	분석시험기	3.8	3.6	1.6	-1.0
반도체 제조용장비 부품	4.8	6.5	5.9	6.0	광학기기부품	2.9	3.6	-17	3.9
꿀 및 로얄제리	3.0	6.4	20.4	16.0	발전기	1.8	3.5	28.3	14.4
계측기	4.4	5.4	-9.1	3.9	전체	445.7	432.1	-1.8	-0.6

주 : MTI 4단위 기준 2016년 상위 주요 수입품,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1. 승용차

■ FTA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 선호 확대로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입은 발효 이후 연평균 37.3% 증가(금액 기준)

* 한미 FTA는 대미 승용차 수입에 대해 한국의 관세율 8%를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발효 5년차인 2016년부터 관세를 철폐

- 대미 승용차 수입은 발효 이후 매년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대미 수입증가를 주도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수입물량이 6만 대에 육박
- 대수 기준으로 평가 시 미국산 승용차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4년차에 일본을 추월한 이후 2016년 20.1%까지 확대되어 발효 전 대비 9.0%p가 증가한 반면 EU(-3.0%p), 일본(-0.7%p)은 점유율이 축소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천 대, %, %p)

기준	수입국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변화
금액	전 세계		36.0	45.3	55.4	80.6	99.1	93.2	21.0%
			(25.3)	(26.0)	(22.3)	(45.4)	(23.0)	(-6.0)	
	미국		3.5	6.8	7.8	9.1	12.1	16.8	37.3%
			(21.6)	(97.7)	(13.9)	(16.9)	(32.7)	(39.4)	
	점유율	EU	74.6	71.7	69.2	74.2	79.5	70.9	-3.6%p
		미국	9.6	15.1	14.1	11.3	12.2	18.1	+8.5%p
		일본	11.4	10.0	13.6	11.7	6.5	8.0	-3.3%p
		기타	4.5	3.2	3.1	2.8	1.8	3.0	-1.5%p
대수	전 세계		115.0	150.6	187.8	260.6	326.8	294.7	20.7%
			(13.8)	(31.0)	(24.7)	(38.7)	(25.4)	(-9.8)	
	미국		12.8	27.8	31.2	33.6	48.4	59.2	35.8%
			(0.9)	(116.6)	(12.4)	(7.8)	(43.8)	(22.5)	
	점유율	EU	64.0	63.4	58.9	64.2	69.6	61.0	-3.0%p
		미국	11.1	18.4	16.6	12.9	14.8	20.1	+9.0%p
		일본	15.3	12.6	19.2	18.3	12.6	14.6	-0.7%p
		기타	9.5	5.5	5.3	4.6	3.0	4.3	-5.2%p

주 1 : HS 8703 기준(단, 870310은 제외),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주 2 : 5년간 변화에 대해 금액은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점유율은 5년간 증감(%p)을 산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2. 의약품

■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입은 국내 의약품 수요 확대와 FTA 효과로 발효 후 5년간 12.9% 증가

- 한국의 대세계 수입이 지난 5년간 연평균 6.8% 확대된 가운데 대미 의약품 수입은 대EU, 대일 수입을 앞지르며 점유율이 19.1%까지 확대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 %p)

수입국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변화
전 세계	42.3 (8.9)	45.2 (6.8)	45.6 (0.9)	51.7 (13.3)	50.8 (-1.8)	58.8 (15.7)	6.8%
미국	6.1 (8.6)	7.5 (21.5)	8.8 (18.1)	10.4 (18.1)	10.1 (-2.5)	11.2 (10.8)	12.9%
점유율							
EU	47.7	47.7	47.8	48.4	44.8	46.8	-0.9%p
미국	14.5	16.5	19.3	20.1	20.0	19.1	+4.6%p
일본	9.7	8.9	7.4	6.6	6.8	7.6	-2.1%p

주 1 : MTI2262 기준,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주 2 : 5년간 변화에 대해 금액은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점유율은 5년간 증감(%p)을 산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특히 호르몬제, 소매의약품 등 완제의약품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 갑상샘·부갑상샘 호르몬제는 프랑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위주였으나 한미 FTA 발효 즉시 8% 관세가 철폐되면서 대미 수입이 대일 수입을 역전

* 갑상샘·부갑상샘 호르몬제 점유율(%) : 일본 28.7, 미국 0('11) → 일본 17.9, 미국 28.5('16)

<주요 의약품의 대미 수입 동향>

(단위 : 만 달러, %)

HS	품목명	관세율 (양허)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對美)	5년간 연평균 (對세계)
3004393000	갑상샘·부갑상샘 호르몬제	8% (즉시)	0 (-)	0.1 (-)	448.0 (329776)	985.0 (119.9)	585.4 (-40.6)	607.8 (3.8)	817.9*	49.2
3004909900	기타 소매의약품	8% (3년균등)	24385.7 (-4.0)	27519.4 (12.9)	36199.1 (31.5)	42481.7 (17.4)	42701.6 (0.5)	45100.1 (5.6)	13.1	6.4
3004901000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8% (3년균등)	557.8 (-13.5)	3105.0 (456.7)	3107.0 (0.1)	4275.0 (37.6)	3723.1 (-12.9)	4808.5 (29.2)	53.9	9.9

주 1 :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주 2 : 갑상샘·부갑상샘 호르몬제(HS3004393000)는 2011년 수입실적이 '0'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 산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3. 농축수산물

- 발효 이후 대미 농축수산물 수입은 연평균 1.7% 소폭 감소(물량기준 2.8% 감소)한 가운데 일부 과실류, 견과류 등 국내 생산이 미미한 품목의 수입은 지속 증가
 - 농축수산물 수입에는 국내 수요 및 FTA 관세인하 외에도 미국 내 작황 등 수입국 현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비중이 높은 곡물 및 사료 수입량은 발효 이후 미국 내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음
 - 과실류, 견과류, 주류 수입은 발효 이후 미국 내 생산량 증가 및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임
 - FTA로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오렌지는 미국 내 작황 부진으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입물량은 소폭 증가(연평균 1.5%)했으며, 24%의 관세가 철폐된 체리의 수입 물량은 발효 이후 연평균 21.4% 증가
 - 견과류 수입은 발효 이후 연평균 8.0% 증가한 가운데 최근 미국 내 호두 생산이 증가하면서 2016년 호두 수입 물량이 10.3% 증가
 - 주류 수입은 발효 초기 와인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국내 시장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맥주 수입이 성장세를 보임
 - 국내 생산이 미미한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는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수입 품목 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FTA 이후 수입이 늘어난 농산물 가운데 바닷가재, 와인 등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들이 이에 해당

<한미 FTA 이후 주요 농축수산물의 대미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만 톤, %)

품목명	금액						중량					
	2011년 (발효 전)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2011년 (발효 전)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중량	중량	증가율	중량	증가율	증가율
농축수산물	7,329.6	6,828.6	-10.3	6,717.1	-1.6	-1.7	1,133.9	880.6	-19.0	982.5	11.6	-2.8
농산물	4,988.5	4,226.9	-13.9	3,953.9	-6.5	-4.5	1,022.3	807.8	-18.8	903.2	11.8	-2.4
곡류	1,034.3	612.1	-12.2	528.9	-13.6	-12.6	262.2	175.9	-18.7	190.5	8.4	-6.2
밀	511.8	357.9	-7.2	297.1	-17.0	-10.3	128.5	113.6	2.3	112.1	-1.2	-2.7
옥수수	396.6	112.9	-60.3	142.2	25.9	-18.5	118.1	46.2	-54.8	66.0	42.9	-11.0
대두	326.0	287.1	-24.3	290.1	1.1	-2.3	55.6	53.2	-12.9	62.2	17.0	2.3
과실류	296.2	431.2	3.2	457.4	6.1	9.1	18.1	17.4	8.2	21.2	21.9	3.2
체리	45.5	119.9	-2.6	109.9	-8.3	19.3	0.5	1.2	-7.6	1.2	2.5	21.4
오렌지	161.8	163.0	4.3	210.0	28.8	5.3	13.6	10.3	12.8	14.7	42.4	1.5
레몬	8.9	33.2	30.3	30.8	-7.2	28.2	0.6	1.3	21.5	1.3	1.5	15.6
견과류	171.5	372.6	7.6	271.4	-27.2	9.6	2.5	3.5	-2.8	3.7	5.4	8.0
호두	81.3	129.2	5.3	84.5	-34.6	0.8	0.9	1.2	8.3	1.3	10.3	6.5
아몬드	84.7	230.6	10.6	174.3	-24.4	15.5	1.5	2.2	-7.1	2.3	3.6	8.5
식물성유지	47.1	52.0	78.3	78.9	51.8	10.9	3.1	4.3	148.9	7.8	80.4	20.7
대두유	32.2	32.5	155.5	57.0	75.5	12.1	2.6	3.8	181.6	7.3	90.1	23.2
유자가공품	35.1	31.1	-4.1	31.3	0.7	-2.2	0.4	0.2	-27.3	0.1	-31.3	-23.9
박류	216.2	178.1	-45.3	196.3	10.3	-1.9	67.6	72.6	-20.3	89.4	23.1	5.7
사료	1,832.4	1,020.7	-32.4	1,044.0	2.3	-10.6	570.3	410.9	-24.5	474.0	15.4	-3.6
소스류	21.8	30.7	2.8	31.4	2.0	7.5	1.2	1.4	-0.7	1.5	3.6	4.4
기호식품	254.9	396.0	2.6	394.5	-0.4	9.1	8.2	20.4	23.7	19.8	-3.1	19.3
커피류	32.7	45.1	1.1	72.3	60.5	17.2	0.3	0.3	-5.7	0.6	84.8	17.7
연초류	11.7	30.8	-17.2	32.4	5.1	22.5	0.2	0.4	-12.2	0.4	5.6	20.4
주류	29.3	118.7	34.4	98.4	-17.1	27.4	1.7	11.8	66.0	9.9	-16.3	42.7
맥주	5.6	9.1	24.4	9.7	6.5	11.7	0.9	1.1	19.1	1.1	3.8	4.6
포도주	12.3	23.1	8.9	21.8	-5.6	12.0	0.3	0.3	-2.9	0.3	-9.1	2.1
당류	20.8	21.6	-21.5	25.9	20.2	4.5	1.6	2.4	-19.7	4.2	74.6	21.1
과일주스	59.0	75.5	7.7	63.3	-16.1	1.4	2.3	3.2	2.5	2.8	-13.7	3.6
농산가공품	136.0	212.0	-5.5	184.1	-13.2	6.2	3.2	4.3	-3.8	3.8	-10.3	3.9
사탕과자류	29.5	53.0	-5.5	43.4	-18.2	8.0	0.6	0.9	-5.5	0.7	-20.9	1.5
기타농산가공품	58.8	95.5	-4.9	85.3	-10.7	7.7	1.4	2.0	-2.9	1.9	-6.4	6.9
육류	1,322.0	1,302.5	0.3	1,465.7	12.5	2.1	39.0	28.6	-7.2	33.4	17.0	-3.0
쇠고기	653.0	802.0	4.9	1,035.0	29.1	9.6	12.8	11.5	3.4	16.9	46.1	5.6
돼지고기	509.9	455.4	12.9	393.4	-13.6	-5.1	16.5	15.1	24.1	14.9	-1.1	-2.0
닭고기	127.7	15.5	-83.9	8.4	-45.7	-41.9	8.7	1.1	-83.4	0.7	-34.3	-39.4
축산부산물	45.5	4.7	11.1	3.8	-19.6	-39.2	3.9	0.1	0.0	0.0	-20.0	-60.0
로얄제리	301.6	523.9	8.9	632.9	20.8	16.0	1.5	1.4	-2.1	1.4	0.0	-1.0
낙농품	213.0	289.5	-24.8	198.4	-31.5	-1.4	5.8	7.8	-15.9	6.0	-23.1	0.4
치즈	140.2	250.7	-16.8	168.6	-32.7	3.8	3.3	5.5	-14.1	4.0	-27.0	4.2
수산물	154.7	245.9	4.0	242.2	-1.5	9.4	5.4	7.7	7.7	8.1	5.9	8.6
바닷가재	0.8	37.7	-8.1	33.7	-10.5	111.6	0.0	0.2	-14.3	0.2	-11.1	
어육, 어란	56.4	83.4	4.6	80.9	-3.0	7.5	2.0	2.9	4.3	2.9	-1.0	8.0

주 : MTI 전 단위 기준 주요 수입품,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쇠고기 수입량은 발효 이후 연평균 5.6% 증가하였으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4.5%p 상승(물량 기준)

- 발효 초기 수입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내 도축두수 감소에 따른 국산 가격 상승과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

* 국내 한우 도축두수(천 마리) : 845('12) → 962('13) → 921('14) → 884('15) → 737('16)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단가(\$/kg) : 6.95('15)→ 6.14('16)

- 미국산 쇠고기는 주요 경쟁국인 호주에 비해 관세철폐 일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입규모가 16.9만 톤을 기록하며 점유율이 41.8%까지 상승해 호주와의 격차는 축소

* 한미 FTA 쇠고기 관세철폐 : 2012년부터 관세 40%를 15년 균등 철폐

* 한호주 FTA 쇠고기 관세철폐 : 2014년부터 관세 40%를 15년 균등 철폐

- 한국이 미국의 경쟁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EU와의 FTA를 모두 발효하여 수입시장을 둘러싼 이들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쇠고기 수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만 톤, %, %p)

기준	수입국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변화	
금액	전 세계	16.8	14.1	15.4	18.5	20.1	22.8	6.4%	
		(41.5)	(-16.0)	(9.4)	(19.8)	(8.7)	(13.7)		
	미국	6.5	5.2	5.8	7.6	8.0	10.4	6.9%	
		(54.9)	(-20.0)	(10.6)	(32.3)	(4.9)	(29.1)		
	전미 5개	호주	50.6	53.4	54.2	51.0	54.2	48.0	-2.6%p
		미국	38.9	37.1	37.5	41.4	39.9	45.3	+6.4%p
		뉴질랜드	9.3	8.4	7.4	6.5	5.0	4.9	-4.4%p
캐나다		0.0	0.5	0.7	0.8	0.4	1.0	+1.0%p	
중량	전 세계	34.4	29.9	30.1	31.5	33.1	40.3	3.2%	
		(18.0)	(-13.2)	(0.6)	(4.8)	(5.2)	(21.7)		
	미국	12.8	10.6	10.1	11.2	11.5	16.9	5.6%	
		(38.6)	(-17.6)	(-4.1)	(10.1)	(3.4)	(46.0)		
	전미 5개	호주	49.4	52.1	55.1	54.8	57.1	49.2	-0.2%p
		미국	37.3	35.4	33.7	35.4	34.8	41.8	+4.5%p
		뉴질랜드	11.5	10.9	10.1	8.5	7.0	6.8	-4.7%p
캐나다		0.0	0.5	0.8	0.8	0.4	1.3	+1.3%p	

주 1 : MTI 022110 기준,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주 2 : 5년간 변화에 대해 금액은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점유율은 5년간 증감(%p)을 산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한미 FTA 발효 이후 아보카도(HS0804400000) 수입 현황

- 미국산 아보카도(HS0804400000)는 한미 FTA로 30% 관세가 발효 후 2단계에 걸쳐 철폐(발효 전 30% → 1년차 15% → 2년차 0%)됨에 따라 2013.1.1일부터 무관세로 수입
-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아보카도 수입은 연평균 48.2% 증가하며 한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48.6%)를 주도했으며, 국내 생산이 미미한 품목 특성 상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미국산 아보카도는 주요 경쟁국인 뉴질랜드산에 비해 관세철폐 일정이 앞서고, 양국 간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수입 시장을 양분
(2~9월 : 미국산 / 10~1월 : 뉴질랜드산)
 - 뉴질랜드산 아보카도는 한뉴질랜드 FTA로 30%의 관세가 발효 후 10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2016년에는 24%가 적용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3%p씩 추가 인하 되어 2024년부터 무관세 적용

<한국의 아보카도 수입 동향>

(단위 : 톤, %)

수입국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5년간 연평균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증가율
미국	295	29.7	474	60.7	665	40.2	893	34.3	1,630	82.5	48.2
뉴질랜드	233	36.4	210	-9.9	432	105.4	403	-6.5	893	121.2	39.2
멕시코	6	71.5	37	553.7	0	-100	219	-	393	79.4	165.1
세계	534	32.9	722	35.2	1097	51.9	1515	38.2	2915	92.3	48.6

주 : HS0804400000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IV. 업계가 바라본 한미 FTA

-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업계의 FTA 활용 성과를 되돌아보고, 대미 교역환경 전망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 무역업계의 한미 FTA 활용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대미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FTA 활용 여부 및 지난 5년간 FTA가 자사 수출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설문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대미 수출입 업체
- 유효표본 : 487개
- 조사기간 : 2017년 2월 13일~2월 28일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 설문조사 결과,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가 응답한 가운데 응답업체의 91.8%가 종업원 수 300인 미만 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 기업분포에 부합
- 응답업체 489개사는 수출위주(59.8%), 수입위주(18.3%), 수출입 모두 활발(22.0%) 등 다양한 사업형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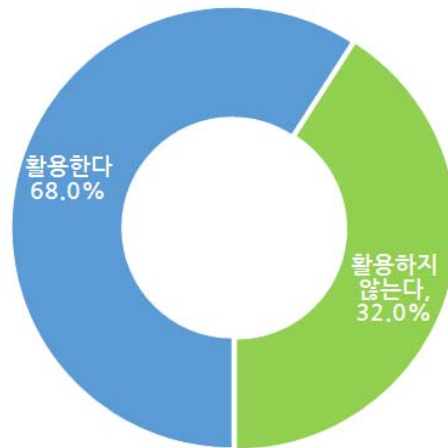
<조사대상 업체 일반정보>

종업원수	비율(%)	매출액	비율(%)	수출입유형	비율(%)
100명 미만	77.6	100억 미만	60.6	수출 위주	59.8
100명~299명	14.2	100억~500억 미만	24.0	수입 위주	18.3
300명 이상	8.2	500억 이상	15.4	수출입 활발	22.0

n=487

- [FTA 활용] 응답기업의 68.0%가 한미 FTA를 수출입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한미 FTA에 대한 업계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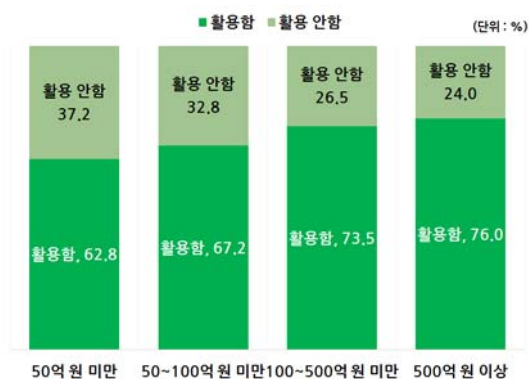
<FTA 활용 여부>



n=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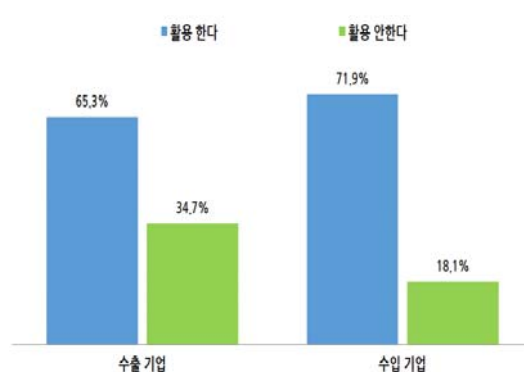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의 71.5%, 100억 원 미만 기업의 63.1%가 FTA를 활용한다고 답변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래 유형별로는 수출기업의 65.3%, 수입기업의 71.9%가 활용 중이라고 응답해 수출입 모두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기업규모별 활용 여부>



n=487

<조사대상 업체 일반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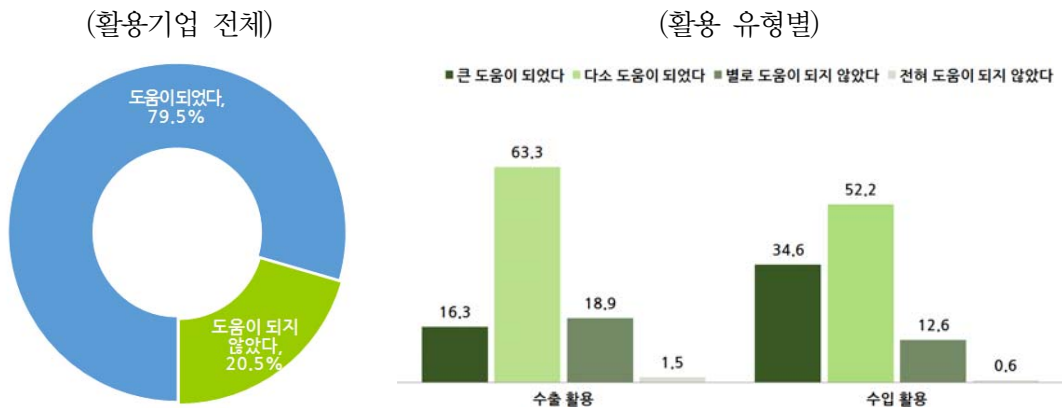


수출 n=398, 수입 n=196

■ [활용 만족도] 활용기업의 79.5%는 지난 5년간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 특히 수입활용 기업의 만족도(86.8%)가 수출활용 기업의 만족도(79.6%)를 상회하여 한미 FTA가 수출입 양면에서 모두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FTA 활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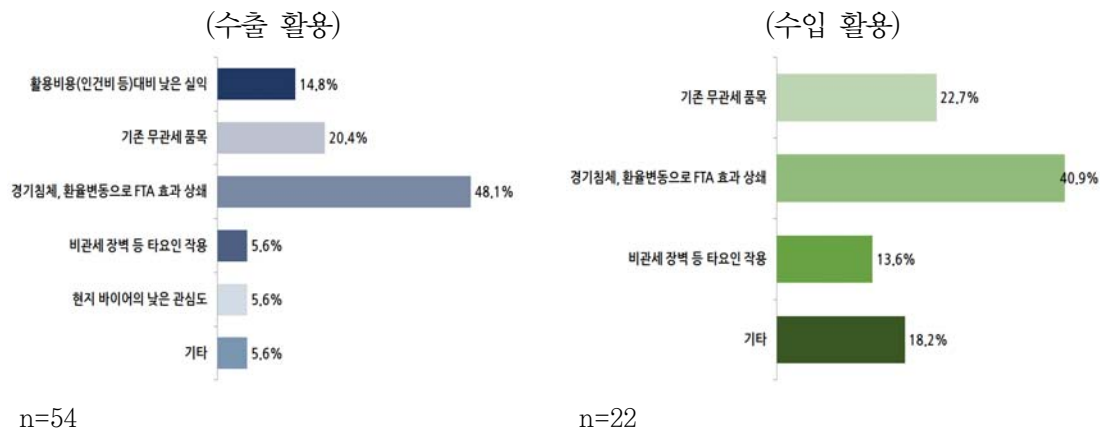


주 : 수출 활용, 수입 활용 기업 각각에는 수출입을 모두 활용하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음
n=331

■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업체들은 그 원인으로 FTA 활용 애로와 환율 및 미국 경기변동을 꼽음

- 현지 수요감소 및 환율 변동이 겹쳐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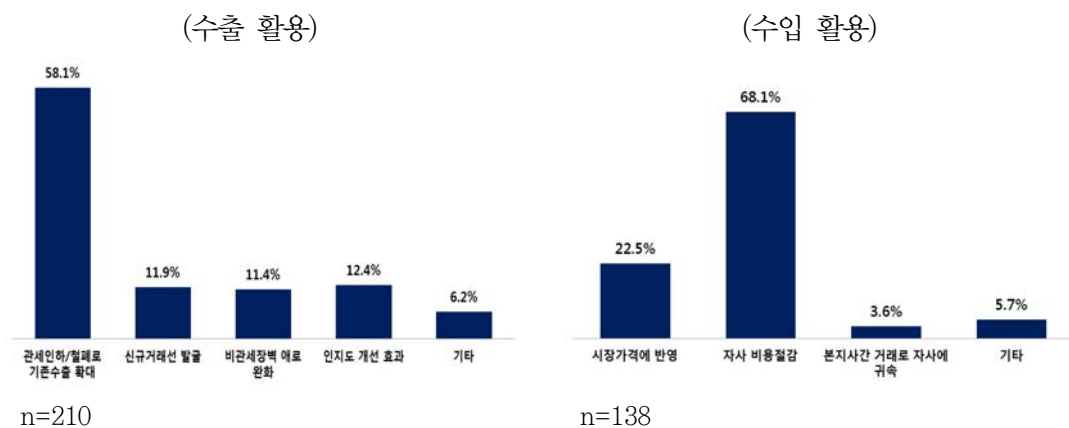
<FTA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도움 요인] 도움이 된 가장 큰 요인에 대해 무역업계는 FTA가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꼽음

- 수출 활용업체는 FTA가 도움이 된 이유를 기존 수출확대로 연결(58.1%), 현지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발생(12.4%), 신규거래선 발굴에 도움(11.9%) 순으로 꼽음
 - 특히 신규거래선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모두 300인 미만 업체로 나타나 한미 FTA가 중소/중견 기업의 외연적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수입 활용업체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분을 주로 자사 비용절감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68.1%)했으며 시장가격에 반영해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응답(22.5%)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로 전기전자, 기계, 화학공업 등의 업종에서 관세 인하분을 자사 비용절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 관련 업체에서도 원료수입 등에 한미 FTA를 활용했다고 응답
- － 업종 특성 상 수입을 통해 원료 및 자본재 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한미 FTA가 업체의 비용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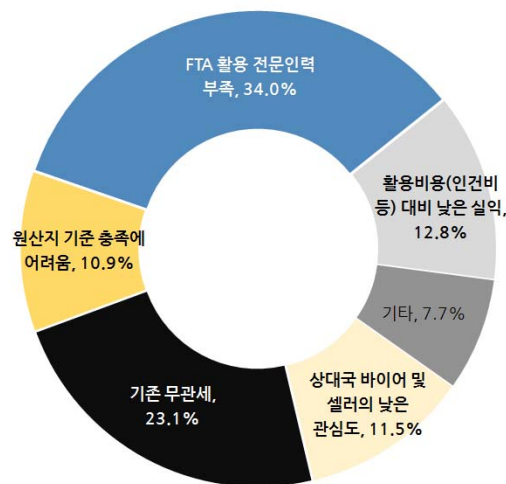
<FTA의 도움 요인>



■ [미활용 원인] FTA 미활용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34.0%), 활용비용 대비 낮은 실익(12.8%)을 꼽음

-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및 관리에 수반되는 인력·비용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 또한 FTA 활용을 위한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1.5%에 달해 국내 업체 외에도 미국 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FTA 미활용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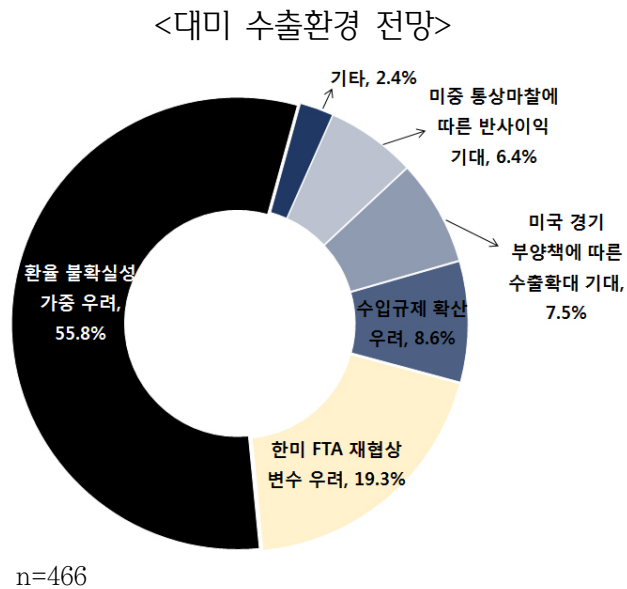


n=156

■ [교역환경 전망]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수출입 환경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계는 환율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55.8%)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미 FTA 재협상(19.3%), 수입규제 확산(8.6%) 등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
- 반면 미중 간 통상마찰에 따른 미국 수입시장 내 반사이익(6.4%), 미국 경기 부양책 시행에 따른 관련분야 수출 확대(7.5%) 등은 대미 교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교역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한미 FTA를 포함해 미국의 통상·환율 등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



V. 결론 및 시사점

■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 교역 둔화, 유가 하락 등 악화된 대외여건 속에서도 양국 교역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상품교역은 발효 이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3.5% 감소한 데 비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2016년(발효 5년차)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4.8%), 수입(-1.8%)이 모두 감소하면서 교역이 전년대비 3.7% 감소했으나 한국의 대세계 교역(-6.4%)에 비해 감소 폭은 적었음

■ 한편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해 FTA를 기반으로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5년차인 2016년 3.19%를 기록해 발효 전 2.57%에서 0.62%p 증가하며 경쟁국인 일본의 성과(+0.2%p)를 앞섬
-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8.50% 대비 2016년 10.64%로 상승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수준을 기록
 - 한국의 4년차 점유율(3.20%) 역시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으로 양국 모두 FTA 발효 이후 상대국에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

■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 이후 5년 간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수입수요 확대 등에 의해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

- 발효 이후 FTA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경쟁국에 비해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미국 수입통계 기준)

-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부터 수혜품목에 포함된 승용차 수출이 해외생산 확대, 태풍 등에 의한 국내생산 차질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수혜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6.0% 감소
- FTA 수출 활용률은 2년차부터 70%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 승용차 수출이 수혜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활용액은 298.4억 달러까지 확대
- 대미 수입은 국내 수요 확대 및 FTA 관세인하 효과로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반면 비중이 높은 곡물, 사료 등의 수입이 줄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철폐된 승용차(연평균 37.3%), 의약품(연평균 12.9%) 등 미국 측 주요 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
- 특히 2016년부터 승용차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향후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
- 국내 생산이 미미한 일부 농식품도 발효 이후 수입 증가가 두드러져 국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아보카도(48.2%), 바닷가재(104.5%) 등은 지난 5년간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
- 발효 이후 수입 급증이 우려되었던 쇠고기는 대세계 수입이 연평균 3.2% 소폭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41.8%로 발효 전 대비 4.5%p 증가(물량 기준)
- 한미 FTA에 대해 업계는 지난 5년간 FTA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8.0%가 한미 FTA를 수출입에 활용하고 있으며 79.5%의 기업이 FTA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특히 수입활용 업체의 만족도(86.8%)가 수출활용 업체의 만족도(79.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가 수출입 양면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한미 FTA에 따른 성과를 종합할 때, 발효 이후 5년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Trade Focus 2017년 7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7년 3월 9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